

# 민주 “與, 협상안 걷어차고 야당이 발목 잡았다 속여”

## “경찰국, 인사정보관리단 예산 생떼” “어떻게 여당이 민생을 볼모로 잡나”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예산안 및 예산 부수법안 처리와 관련해 “스스로 협상안을 걷어차곤 야당이 발목을 잡은 것처럼 국민을 속이려 한다”며 여당을 비판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21일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은 위법적 시행령으로 신설된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을 수용하

라며 생떼를 부리고 있다”고 말했다.

또 “주호영 원내대표도 합법적으로 설치된 기관이라며 발목 잡아서 안 된다고 억지 부린다”며 “어떻게 여당이 민생을 볼모로 예산안을 잡고 있을 수 있나”라고 규탄했다.

아울러 “법 취지를 벗어난 시행령으로 조직을 신설하고 예산을 내려 달라 하면 그게

합법인가”라며 “위법을 합법으로 우기며 국회에 예산을 내놓으란 뻔뻔함은 어디서 나오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민주당은 대승적 결단으로 예비비로 편성하는 국회의장 중재안을 수용했지만 국민의힘은 제 발로 협상안을 걷어차 버렸다”며 “중재안을 거부하며 자기 발목을 잡고 있는 건 국민의힘”이라고 했다.

또 “대안은 제시하지도 않고 대통령 고집을 수용하라 한다”며 “국민의힘은 조속히 진정성 있는 협상안을 제시하든지 아니면 국회의장 중재안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최이슬 기자



## 尹 지지율, 45%대 근접...2주 만에 5%p 오른 44.5%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국정수행 긍정 평가)이 45% 대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뉴시스가 국민리서치그룹과 에이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7~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해 긍정 평가가 44.5%를 기록했다. 이는 같은 기관의 2주 전 조사(12월 2주차·39.5%)보다 5%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부정 평가는 2주 전(58.3%) 대비 4.2%포인트 하락한 54.1%로 집계됐다. 긍정과 부정 차이는 9.6%포인트로 오차 범위 밖이다. '잘 모름·무응답'은 1.4%였다.

인천·경기(2주전 대비 9.2%포인트 ↑), 60대 이상(14.9%포인트 ↑)이 지지율 상승을 견인했다. 특히 진보성향층에서 10.5%포인트(11.4%→21.9%), 여성층(34.8%→44.8%)에서 10.0%포인트나 급등했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지역을 제외하고 모두 긍정평가가 상승했다.

인천·경기 지역에서 9.2%포인트(34.7%→43.9%)가 올라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다. 이어 서울 4.9%포인트(40.2%→45.1%), 대전충청세종(41.5%→45.8%)과 부산울산경남(41.6%→45.9%)이 모두 4.3%포인트 상승했

### 尹 국정수행 평가, 긍정 44.5%, 부정 51.4%

다. 대구·경북지역에서는 0.9%포인트 상승한 반면, 광주·전남·전북에서는 0.3%포인트 하락했다.

성별로는 남성층은 2주새 큰 변화가 없었으나 여성층에서는 무려 10.0%포인트나 올랐다. 연령대별로는 20대에서 유일하게 하락했다. 2주 전에는 국정수행 긍정평가가 41.5%였으나 이번주에는 2.2%포인트 하락한 39.3%였다.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연령대는 60대 이상으로 무려 14.7%포인트 올랐다. 이어 40대 3.0%포인트, 50대 1.3%포인트, 30대 0.1%포인트 순이었다.

정당 지지도별로는 국민의힘 지지층의 긍정 평가는 하락한 반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긍정 평가가 상승하는 기현상이 나타났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윤 대통령 지지율이 2주전 대비 0.9%포인트 하락한 82.0%를 기록했고,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4.4%포인트 상승한 11.1%로 집계됐다. 기타 정당 지지자, 무당층에서도 각각 2주 전 대비 12.4%포인트, 2.2%포인트 상승했다.

정치성향별로는 진보·중도·보수 할 것 없이 모두 긍정 평가가 올랐다. 진보성향에서는 무려 10.5%가 상승해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보였고, 이어 '잘 모르겠다' 10.2%포인트, 보수성향 2.4%, 중도성향 0.8%포인트 상승 순이었다.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해 긍정평가한 이유로는 '결단 및 추진력(39.3%)', '공정과 정의(30.6%)', '외교 및 안보(9.0%)', '경제와 민생(5.8%)', '부동산정책(5.7%)', '국민과의 소통(5.3%)'를 꼽았다.

2주 전과 대비해 '결단력·추진력'이 6.0%포

인트 큰폭의 상승세를 보인 반면, 국민과의 소통은 이전 조사와 비슷했다. 외교 및 안보를 꼽은 응답자는 3.9%포인트 줄었다.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 부정평가를 한 이유로는 '경제와 민생(22.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직무태도(22.4%)', '다양한 의견 청취 부족(17.3%)', '정치경험 부족(12.9%)', '인사문제(11.0%)', '외교 및 안보(7.4%)' 순이었다.

국민리서치그룹 관계자는 “윤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 상승 기류에는 지난 15일 국민패널 100명을 초청해 진행한 국정과제점검회의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노동연금교육 등 3대 개혁 국정방향 제시와 더불어 ‘문제인케어’ 폐기 등 문재인 정부 정책 지우기, 국정과제 점검회의의 국민패널 참석 등 과감한 변화를 통한 소통 이미지 각인 등이 대통령의 업무 추진 능력과 혁신 및 변화로 비춰져 긍정평가 상승에 동력으로 작용했다”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대장동 의혹 핵심 인물인 김만배 씨의 극단선택, 측근 구속 등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커지면서 돌아선 진보성향층이 윤 대통령 긍정평가층에 흡수됐다는 게 조사 기관의 설명이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조사는 무선 100% 자동응답(ARS)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0.8%였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김재한 기자

## 대통령실, 국정과제점검회의 리허설 공개 YTN에 사과 요구 이재명 “날리면 시즌2 시작하나” 비판

### “국민의 눈과 귀 가릴 수 있다 믿는 것은 착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일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과제점검회의의 리허설 영상을 공개한 YTN을 향해 사과와 책임자 문책을 요구한 데 대해 “날리면 시즌2를 시작하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실이 국정과제점검회의의 리허설 영상 공개와 관련해 YTN에게 사과와 책임자 문책을 요구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언론 재갈물리기법 같은 것을 강행하면 민심의 바다에 분노의 물결이 일 것. 이것은 제가 한 마리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한 말”이라며 “그대로 돌려드린다.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릴 수 있다고 믿는 것

은 착각이다. 국민과 역사 앞에 겸손해지기 바란다”고 말했다.

민생 경제 상황과 관련해서는 “내년도 민생과 경제가 더 나빠질 것이라는 점에 대해 이견이 없고 모두가 알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태도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며 “당장 탁월 명백한 위기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고 부도날 게 뻔한 미래에 대한 공수표만 남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물리, 고금리, 실업에 고통받는 국민의 현실을 직시하고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며 “제가 예를 들어드리겠다. 초보자 감세할 돈으로 서민 금융지원하고 국민에 물가 지원금을 지원해주고 노인일자리 같은 공공일자리를 만들어 심각한 실업에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일을 지금 당장 해야 앞으로 몇 년 후에 5만불, 4만불하겠다 이런 얘기는 꿈과 희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 고통과 좌절을 주는 얘기가 될 수 있다. 때와 장소를 가리는 것도 능력”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이 이태원 국정조사에 복귀한 데 대해서는 “마땅한 일이지만 그 전에 국민의힘이 해야 할 일이 있다”며 “지금까지 국정조사를 방해하다시피 한 것과 희생자와 가족들에게 당내 인사들이 한 가혹하고 용인할 수 없는 망언과 2차 가해에 대해 사과하고 문책부터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슬비 기자

##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문의  
(062)  
228-2580

##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전국 꽃배달 서비스  
**60,000**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